

모든 종교, 방법 달라도 추구하는 진리는 '하나'

강사 : 시린 에바디(노벨평화상 수상자)

일시 : 2009년 8월 9일

주제 : 종교간의 평화와 화해

장소 : 서울 여해문화공간

주최 : 아시아기자협회

시린 에바디(Shirin Ebadi · 62) 변호사는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 이슬람권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역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2003년 노벨평화상을 받는 등 세계적 인물로 부상했지만, 정작 그의 조국 이란에서는 여전히 오주의 반체제 인물이자 정권의 눈엣가시이다. 당국으로부터 활동을 중단하라는 압력과 거듭되는 투옥, 수차례 암살명단에 올라 위협을 받았지만 "이란의 인권 향상은 이란 스스로가 이뤄야 한다"며 자주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뒤에도 에바디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에바디는 "이란과 같은 경직된 사회에서 여성의 몸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 길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약자의 인권개선과 세계평화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그녀가 만해대상(평화부문) 수상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신정(神政)체제의 이란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에바디가 말하는 '종교 평화와 화해'의 비전은 어떤지 살펴보자.

#이슬람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슬람과 인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슬람의 비민주적인 정부와 정치인이고, 두 번째는 이슬람의 급진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의 비민주적 정부는 민주주의를 서양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 이슬람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정부의 권력이 종교에서 오는 것이 투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오직 자신들의 편을 표현하는 이 데올로기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이야기할 뿐 순수 무슬림들의 생각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 분리돼야

종교를 바탕으로 한 정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에 기본을 두고 나라를 세워야지, 자신의 신념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입니다.

그가 주장한 이론은 '문명의 충돌'입니다. 그는 이슬람과 동아시아 지역의 유교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로 규정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서양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슬람과 중국 등 비기독교 문명권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9대 문명권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민족·종족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증거로 드는 것이 일부 이슬람 과격파들의 테러리즘이나, 이슬람 국가의 비민주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이론이 서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끝나자 이 이론이 생겼습니다. 공산주의와 냉전이 없어지게 되면서 서구는 자신들의 무기를 팔 상대를 찾아야 했고 따라서 적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명의 충돌'은 서구의 주장일 뿐

이슬람은 과거에 공산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서방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슬람 과격파도 미국의 지지 하에 운영됐습니다.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군사적으로 점령했을 때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아 탈레반이 설립됐습니다. 탈레반은 미국의 무기와 힘을 이용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친분관계에 있었던 이슬람과 서구는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갑자기 적대적인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 이론이 이슬람세계에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서구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슬람세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의 비민주적 정권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신사고를 가진 이슬람 사람들은 현 정권에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룹의 특별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중심이 되는 브랜치(branch)와 사무소도 없습니다. 그 힘은 무슬림들의 정신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신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슬람의 본질적인 것은 문제가



시린 에바디 Shirin Ebadi는...

1947년 6월 21일 이란 출생. 학력-테헤란대학교 법학. 수상-2003년 노벨 평화상(여성과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투쟁한 공로). 2001년 노르웨이 라프토상. 경력-1999 이란 테헤란대학교 법학 강의, 1974~1979 이란 테헤란시 법원장.

서울 장충동 여해문화공간에서 '종교간의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강연하는 시린 에바디.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민주적인 이슬람정권은 민주주의가 선택돼 자신들의 정권이 정복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슬람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

이슬람은 실제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성경인 <코란>은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란 10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을 위한 것이고, 나의 종교는 나의 종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란 99장에는 "만약 하느님께서 이 땅에 믿음이 있길 원한다면 억지로 종교를 가지라고 강요할 것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했다면 하나의 종교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하마드는 이 땅에 다양한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슬람 근본 원리는 이것입니다.

#종교구실로 인권 억압해선 안돼

이슬람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락하신다면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란 과거의 정의를 물어보면 '대다수의 지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독재자들도 다수의 지지에 의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서 이긴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표를 받고 선출된 사람들은 인권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틀이라는 것은 '인권을 관장하는 규칙'입니다.

어떤 정부든 종교를 구실로 해서 사람들, 특히 여자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정부도 이데올로기를 구실로 해서 자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합법성을 사람들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문화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에 관련된 원칙은 국제적인 것입니다.

#종교의 공통점은 모든 이의 행복추구

어디에서나 한 가지입니다.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차이가 없고 한가지의 원리가 있을 뿐입니다. 또 무슬림이나 기독교인들에게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종교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종교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 길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잘 살아야 하는 문제'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이웃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 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나라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전파하는 메시지입니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살펴보면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한국도 빨리 통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산가족도 모이길 바랍니다. 항상 평화롭게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박선주 기자 sunjo0802@naver.com

종교 바탕한 정권 있을 수 없어... 이슬람 본질 왜곡돼 이데올로기 구실로 자유에 대한 믿음과 신념 무시 '안돼'



강연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p>불자 정보</p> <p>745호 </p> <p>TEL 02) 2004-8213 (월) 732-1522 FAX 02) 737-0696</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p>010-9990-5234</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서구 8부능선 • 평수: 대지 50평 건평 45평 • 가액: 2억 2천만원 <p>010-4578-8277 010-9998-2926</p>
<p>사찰(급)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원도 영월군 • 부지: 총 1650평, 대지 300평 • 건평 100평 • 구조: 법당, 요사채 2동, 산신각, 용신각, 황토벽돌 • 요사채 1동은 구들방으로 된 황토 귀틀집(방 5개)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p>010-4320-8842</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중구 동성로 • 3층건물 중 3층 옥상, 인법당. • 실내전용면적 40평 • 불교대학운영적합 비품일체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p>011-536-6430</p>	<p>사찰 부지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15,000여평 • 위치: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옛 사찰터 임) <p>011-9637-3872</p>
<p>포교당(급)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p>016-850-1208</p>	<p>대형포교당(전세및양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지역 고속터미널 부근(부천) •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220평 14층 /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양양인테리어 •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융자포함 5억 양도 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p>011-707-5552</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마산역 시장 내 • 포교원 인수하실 분 • 방 2, 삼층, 방화모서져 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 있음 <p>011-9696-0949</p>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집합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 중단 입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 입증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집한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레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四柱는 감정(鑑定)이 기본이요 핵심이다.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하므로 강의를 들을수록 실감이 날 것이다. 역학(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고전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과 五行의 변화법칙일 뿐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20여 년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선생의 강의를 듣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 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 하루 한 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관운은 있느냐 없느냐, 시험은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사업운이 있느냐 없느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외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좋지 않느냐, 교통사고는 어느 달에 생기는냐, 관제 구설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 공부하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생생하게 직접 듣는 것과 같다. 더욱이 실존했던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상세하게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현재 대구에서 23기 강의 중, 수강희망자 환영)

-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 테이프와 교재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